

원전 건설의 경제성 제고

대림산업(주)

국 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의 깊은 수렁에서 시작된 지난 98년은 실로 유례가 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 참으로 암울하고 힘겨웠던 기간이었다.

건설 업계의 지난 한 해는 특히 힘겨웠다. 경제 침체를 맞아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고 공공 건설 부문 또한 초긴축 재정 운용에 따라 사상 유례가 없는 수주난에 봉착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건설 업체는 무한 경쟁 체제의 전환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존 차원의 대응 전략 및 신기술 개발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전력 사업은 국가 기간 산업의 주축으로서 관련 업계의 고용 창출 및 구조적인 불황 타개를 위한 해법이란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저렴한 발전 원가로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의 건설이야말로 현시점에서 어느 건설 분야보다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경제가 불황을 타개하고 IMF를 이겨내서 다시 도약의 길에 나서는 데 있어

원전 사업이 선봉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식 경영

대림산업(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부실을 예견하고 일찍이 창업 50주년인 89년에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이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전략 수립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체질 개선, 과감한 글로벌화와 내부 체제 정비 등에 역점을 두어 「기술력 고도화, 시장 다변화, 경영 체질 소프트화」를 추구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단순 경영 개선 차원으로는 구조적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식 경영(Knowledge Management)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경영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임직원의 공감과 동참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지식 경영은 개인보다는 서로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성과를 증폭시키고 체계화된 지식 결과를 교육을 통해 전달·보급-

피드백시켜 60년 기원의 역사를 지식 경영으로 집대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화된 지식 창고를 구축하여 조직과 개개인의 지식이 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조직 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 활용하여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 21세기 건설 한국의 선봉으로 세계 시장에서 대림의 위상을 떨쳐갈 것이다.

품질 및 환경 경영

요즘은 고객 만족의 단계를 넘어 고객 감동을 추구할 정도로 기업에 있어서 품질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림산업(주)는 국제 품질 규격의 ISO 9001을 취득한 이래 매년 갱신을 통해 본사는 물론 국내외 전현장에까지 품질 보증 시스템의 정착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부를 두어 고객의 니즈 파악 및 리얼 타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창업 이래 '폐척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라는 기업 이념에 따라 국

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건설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온 대림산업(주)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찍이 자연 환경 보전 및 생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전임직원이 깊이 인식하여 97년 ISO 14001 인증을 취득, 국제 기준의 환경 경영 체계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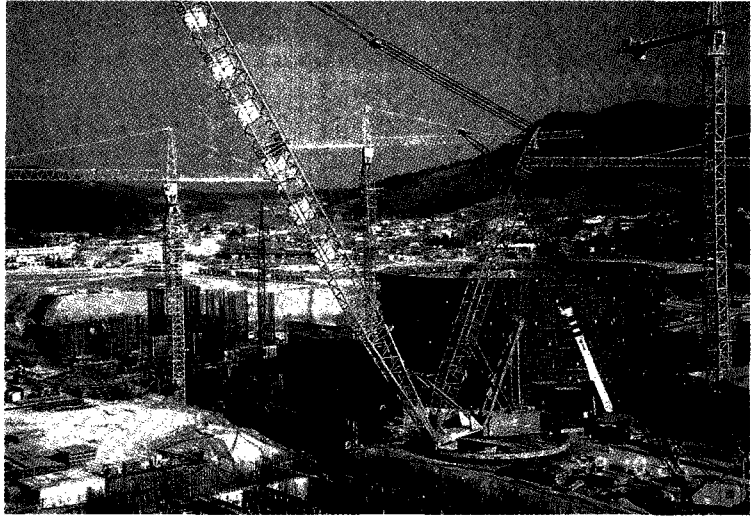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기획·설계하고 시공 관리하며 전임직원이 환경 경영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 회사도 환경의 중요성을 자각케 하여 적극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환경과 안전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건설 가치관에 발맞춰 환경 친화적인 시공 및 무재해·무공해·무질병 사업장의 구축을 위해 ISO 14001의 전사적인 적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원자력 사업

99년도 현재 대림산업(주)에서 수행 중인 영광 5·6호기 주설비 공사는 사업 초기 착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계획 공기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다.

그동안 구조물 중심의 공사에서 본격적인 기전 공사에 돌입하게 되어 5월과 10월에 각각 5·6호기 원자로가 설치되고 기전 공사의 절정을 이루게



영광 5·6호기 공사. 대림산업(주)는 영광 5·6호기 건설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현장 경험에 반영해서 독자적인 자립 기술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이를 토대로 개량형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 사업의 시공성 향상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뒤에 따라 그간 축적된 플랜트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요 공사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간 원전 기술 자립을 추진해온 대림산업(주)는 원전 건설의 경제성 제고를 목표로 원전 건설 시공성 향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해외 원전의 시공성 향상에 관한 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국내 원전 적용 가능 여부를 연구해왔다.

이를 영광 5·6호기 건설을 통해 축적되고 있는 현장 경험에 반영해서 독자적인 자립 기술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이를 토대로 개량형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 사업의 시공성 향상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내 교육 훈련을 통한 기술 인력의 자질 향상, 공정 및 품질 관리 분야와 같은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 신기술의 적극 도입, 독창적

인 각종 표준 절차서의 제정, 기술력에 기초한 원전 사업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할 전산 체계를 구비·개발함으로써 기술 기반을 확고히 다져 차기 독자적 원전 건설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엔 차기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높은 부가 가치로 인해 그 의미가 더욱 주목되는 해외 원전 시장 진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불황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림산업(주)는 그간 이룩한 플랜트 건설 대립의 명성과 원전 시공 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국내 원전 건설의 새 장을 열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 무한 경쟁의 건설 환경 속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세계 곳곳에 대림의 이름을 찬란하게 떨치며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21세기를 선도하려 한다. ☞